

“도영아, 겸손 잃지 말고 꾸준히 지금처럼만 해주렴”



KIA타이거즈 김도영(오른쪽)이 광주동성고 3학년 재학시절 아버지 김현수씨와 함께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산책로를 걷고 있다. 김현수씨 제공

아버지 김현수씨가 바라본 김도영

토목기사로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
어릴 때 활달하고 뛰는 것 좋아해
이모 적극 권유 야구부 학교 전학
보약 따로 안 먹이고 레슨도 안해
“40-40보다 팀 우승에 힘 보태길”

“언제든 나올 기록이었기 때문에 도영
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. 편하
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기록을
달성해 줘서 정말 대견합니다.”

KIA타이거즈 김도영을 묵묵히 뒷바라
지해온 아버지 김현수씨의 감회다. 김도
영은 토목기사로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
를 비롯한 가족들의 응원과 지원 속에 광
주와 타이거즈를 넘어 한국 야구를 대표
할 선수로 성장했다.

지난 15일 쏘아 올린 홈런포는 김도영
의 진가를 입증시켰다. 김도영은 이날 고
척 키움전 5회초 1사 1루에서 엔타누엘

데 헤이수스를 상대로 중월 투런포를 터
트리며 KBO 리그 역대 최연소·최소 경기
‘30홈런-30도루’를 달성했다.

김씨는 “특별한 느낌은 없었다. 드디어
됐다고만 생각했다”며 “아들에게는 부담
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. 도영이도 안타 하
나씩 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 충분히
‘30-30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
때문에 믿고 있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아버지 김씨는 덩달아 말했지만 프로
3년 차 앓던 선수가 30홈런-30도루를 기
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.

데뷔 첫해인 2022시즌 3홈런, 2023시
즌 7홈런에 그쳤던 김도영은 올해 급격한
성장세를 이뤘다. 특히 20세 10개월
13일의 나이로 1996년 박재홍(현대유니
콘스)의 최연소 기록을 2년 이상 단축했
다.

김도영의 아버지 김씨도 어릴 때는 야
구 유망주였다. 광주송정동초등학교에서
투수와 내야수로 선수생활을 하다 운동을
포기했지만 그의 야구 DNA는 아들에게

그대로 전수됐다.

김씨는 “도영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발
이 빨랐기 때문에 주루나 도루에서는 강
점이 분명했다. 도루는 30개 이상 충분히
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”면서도 “이렇
게 빨리 성장할 줄은 전혀 몰랐다. 올 시즌
개막할 때도 30홈런-30도루는 감히 생각
도 안 했던 일이다”고 회상했다.

김도영의 야구 인생 첫 밭은 이모인 흥
의정씨 역할이 컸다. 워낙 활달한 데다 뛰
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조카의 에너지를
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게 이모의 판단이
었다.

이 때문에 김도영은 광주 효덕초등학교
4학년 때 야구부가 있는 대성초등학교로
전학하면서 야구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
했다. 김도영은 야구부 입단 초기에는 외
야수를 주로 소화했지만 중학교 진학을
앞두고 내야수로 전향한 뒤 이 포지션이
지금까지 이어졌다.

김씨는 “도영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워
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이모가 ‘야구를

시키면 운동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’이라
고 권유했다”며 “초등학교 때는 주로 외야
수로 뛰다가 6학년 막바지에 내야수를 시
작했다”고 설명했다.

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김도영의 가장
큰 고민은 힘이었다. 스피드에서는 어린
시절부터 확실히 두각을 나타냈지만 프로
에서 30홈런을 거뜬히 때려낼 수 있는 힘
있는 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
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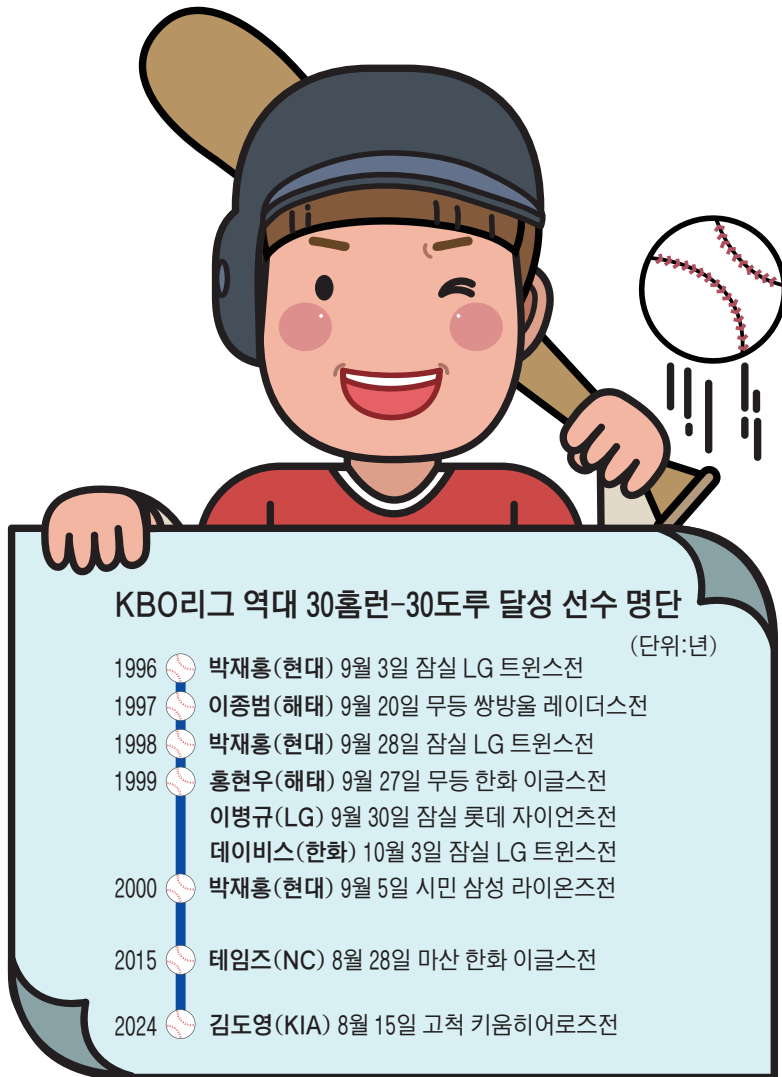
김씨는 “도영이 엄마가 초등학교 운동
회에서 달리기 1등할 정도로 빨랐는데 그
영향을 받은 것 같다. 누나들도 굉장히 빠
르다”며 “도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
키가 앞에서 세 번째 정도일 정도로 작았
는데 졸업할 때까지 20cm 이상 컸다. 키가
크면서 힘도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다”고
말했다.

김씨는 “보약 같은 걸 따로 먹이지 않았
고 개인 레슨도 안 받았는데 정말 신기하

다. 타고났다고 해야 하나 싶다”며 “프로
에 와서도 부상 때문에 2년 동안 고전했는
데 올해 설움을 다 털어내는 것 같다. 도영
이는 늘 자신 있어 했는데 걸맞은 활약을
보여주고 있다”고 뿌듯해했다.

아버지로서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
욕심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담감은 일체
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. 남은 시즌 ‘40홈
런-40도루’의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개인
기록보다는 팀 우승에 집중해달라는 당부
다.

김씨는 “개인 기록에 부담 주고 싶지 않
다. 차근차근 홈런도 치고 운도 따르면
40홈런-40도루도 나올 수 있을 것”이라
며 “도영이 스스로도 기록보다는 팀을 위
해 출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. 홈런보다
는 출루로 점수를 더 내면서 팀 우승에 힘
을 보태주길 바라고, 안 다치고 겸손하고
꾸준하게 지금처럼만 해주길 바란다”고
당부했다. **한규빈 기자** gyubin.han@jnilbo.com



한빛원자력 계속운전 1

경제적 탄소중립 실현, 계속운전이 필수적 입니다.

**더운 지구를 식히는
원자력 발전**

○ 무탄소 전원

**전력수입 못하는
우리나라**

○ 에너지 수입 전면중단시에도
2-3년 전력생산 가능

**원자력 발전 중단 시
신규건설 필요**

○ 대체발전소 건설기간 /
비용부담 필요

계속운전 | 운영허가만료 원전을 안전성 검증 후 계속하여 운전

한국수력원자력주 | 한빛원자력본부